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기완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김종성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조교수)***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타트업 CEO의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참여자의 특성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 기업성과(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를 종속변수,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과 희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고, 엑셀러레이터의 역량 및 프로그램 질적 수준 차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는 스타트업의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때 희망이 매개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스타트업의 기업성과 향상을 위해 국내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희망 수준이 높아지도록 엑셀러레이팅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업성과, 자기효능감, 희망, 매개효과

1. 서론

스타트업은 기술 및 아이디어의 수명주기가 짧아진 산업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연한 조직 구조로 민첩하게 반응하며 위험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시도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인적, 물적 자원이 빈약해 비즈니스모델을 확립하고 사업화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하게 되며,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지 못하고 창업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배상완·이동명, 2022). 따라서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비즈니스모델로 구체화하여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참여 주체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생태계는 정책, 금융, 문화, 지원, 인적자원, 시장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창업생태계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하며(Isenberg, 2010), 창업생태계 구성 주체, 조직, 자원 간 상호연결성 및 상호작용이 중요하다(이슬기 외, 2022). 이러한 이론적, 실용적 배경에서 창업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엑셀러레이터는 2005년 Paul Graham이 설립한 Y Combinator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고(배상완·이동명, 2022), 이후 전 세계적으로 창업생태계의 스타트업 육성 제도로 확산되었다. 엑셀러레이터는 대략 3개월의 한정된 기간동안 참여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벤처 프로세스를 갖도록 도와주고, 작은 금액의 시드투자자와 공간을 제공하며, 동료 벤처사업가나 멘토들과의 네트워킹, 교육 및 멘토링 기회를 부여하며, 최종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피칭을 하는 데모데이(demo-day) 행사로 마무리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Cohen & Hochberg, 2014).

이와 같은 종합 창업 지원기관으로서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우리나라는 엑셀러레이터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배상완·이동명, 2022). 또한 엑셀러레이터 활성화 및 역할 증대에 발맞춰 이들이 운용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이 논문은 저자 김기완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김기완, 2023)

** 주저자,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kwkim6163@naver.com

*** 교신저자, 국민대학교 경영학부/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조교수, 01041603713@kookmin.ac.kr

· 투고일: 2024-05-07 · 수정일: 2024-06-25 · 게재확정일: 2024-08-03

김경수(2018)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멘토링 기능이 창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김진한 외(2020)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창업기업 핵심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핵심역량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상철(2022)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네트워크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권영은(2022)은 기술역량, 조직역량과 비재무적성과의 관계에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하는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처럼 기업가정신, 기업역량 등이 기업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거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사례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참여자의 심리상태 등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경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CEO의 긍정심리자본 등 개인적 특성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효과로 나타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긍정심리자본은 문제와 역경에 시달려도 끈기 있게 행동하면서 회복력을 발휘해 성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긍정적인 심리 발달 상태에서 긍정적 조직행동이론과 조직관리 개발에 관련된 긍정성 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상태적 심리자원이며(임태홍, 2014), 최근에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이 창업 의도나 기업가적 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상정되어 영향력을 검증하기도 한다(배미아, 2021). 장현철(2021)은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김나경(2018)은 소상공인의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은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상철(2022)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긍정심리자본은 조직과 개인 차원 모두에서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외부 자원의 활용과 교육의 영향에 있어 개인별 수용도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긍정심리자본 보유 정도에 따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의 역량 차이와 기업 성장단계의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모형이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공기업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이 공모제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발하고 유수의 민간 액셀러레이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와 IBK창공에 참여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자체를 고도화하고, 더 나아가 액셀러레이터라는 외적 도움이 기업 성장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여자의 긍정심리자본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2.1.1.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모든 액셀러레이터가 통일화된 활동 범위를 갖고 있지 않고 액셀러레이터 성향에 따라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요인들이 각기 다르지만(권영은, 2022),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로 입주공간, 멘토링, 교육, 네트워크, 투자 등이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요건으로 ‘보육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을 규정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 기업을 보육하는 공간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공간은 스타트업에게 제공되는 공동 업무공간으로 기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비즈니스 개발 조언을 하는 ‘관리팀과의 정기적 상호작용’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접촉하게 되는 ‘전문가와 네트워크’, 그리고 재무, 디자인, PR, 마케팅, 법률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써(Nesta, 2024), 원활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의 기초가 된다.

멘토링은 멘티가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고 조직 내에서 성장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기능으로서 후원, 노출 및 소개, 코칭, 보호, 도전적 과제 부여를 의미하는 경력 기능(career function)과 멘티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는 등의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자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으로서 수용 및 지원, 상담, 우정, 역할 모형 등을 포함하는 심리 사회적 기능(psychosocial functions)으로 구분된다(Kram, 1983).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에 경험과 전문지식의 부족 및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성장해 나가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멘토링을 핵심 서비스로 운용하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선배 창업가가 노하우와 정보를 후배 창업가에게 전수하고 스타트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배광득, 2021).

교육은 멘토링과 함께 기업들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선적 이유이다(Cohen & Hochberg, 2014). 멘토링이 경영이나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기업의 성장단계나 비즈니스모델 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교육은 다수의 인원 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제공하는 이론적 프로그램이다(임영관, 2020). 교육을 통하여 사업의 준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 관련 분야의 기술 및 상품 개발, 재무·회계, 홍보·마케팅, 인사노무, 법률, 특허(IP), 계약, 협상 등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권영은, 2022).

네트워크는 자원, 정보, 지식 흐름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활동이다(Rickne, 2006).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선배 창업가 또는 이전 프로그램 졸업기업, 투자자, 관련 분야 대기업 관계자 등과의 교류를 통해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되며, 또한 같은 기수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론하고 서로 조언을 주고받음으로써 성장해 나간다(Miller & Bound, 2011).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멘토나 투자자를 만나게 되고, 이들을 통해 또 다른 멘토나 투자자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기회에 노출됨으로써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을 얻게 된다(김상철, 2022).

투자는 금융권 등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 필요로 하는 기본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더욱이 시드(Seed) 투자에 그치지 않고 멘토링, 교육, 네트워크 등 다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켜 벤처캐피털로부터의 후속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권영은, 2022). 투자는 사업 초기 자금 유체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요 이유로 지목되기도 한다(김영범, 2023)

2.1.2. 스타트업 네스트와 IBK창공 프로그램

본 연구의 대상인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및 중소기업은행의 IBK창공은 금융공기업이 민간 엑셀러레이터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일반적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본 요소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운용하고 있는 정책자금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통해 과감하고 다양한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을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프로그램을 졸업한 기업 중 각 기관이 정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기업들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다양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로 성장해 나간다.

신용보증기금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네스트는 기수제(cohort)로 운영되며, 약 2주간 공모를 통해 미래 성장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3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함께 ‘엑셀러레이팅→금융지원→성장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신용보증기금, 2023).

참가기업의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 분야 등 특성에 맞는 전문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며, 기업의 성장전략 수립과 IR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멘토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및 다자간 협의체에 참여하는 ‘네트워킹’, 법률·세무·회계 등의 자문을 하는 ‘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신용보증기금, 2023; 김경수, 2018). 외부 투자자들 앞

에서 사업을 소개하는 데모데이를 끝으로 종료되며,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투자 등 금융지원과 해외 진출, 기술 컨설팅 등 성장지원의 후속 지원절차가 진행된다(김경수, 2018).

중소기업은행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IBK창공은 기수제(cohort)로 운영되며, 약 5주간 공모를 통해 혁신성, 시장성, 사업성을 갖춘 설립 7년 이내 혁신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약 5개월간의 엑셀러레이팅 기간 동안 금융지원, 멘토링, IR, 데모데이, 중소·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사무공간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중소기업은행, 2023). IBK창공은 서울 마포, 서울 구로, 부산, 대전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엑셀러레이팅 이후 투자자, 유관기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등을 발표하는 데모데이(Demo day) 행사를 끝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이후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대출이 제공된다(중소기업은행, 2023).

2.1.3.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성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운영주체 및 내용과 참여기업의 특성 등이 다양한 만큼 그 효과를 산출하는 연구주체도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대체로 경영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결과
김경수 (2018)	엑셀러레이터의 멘토링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멘토링의 경력개발기능과 심리사회적 기능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
강달철 (2020)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조절 효과 검증	엑셀러레이팅의 정량적 요소(시드투자, 후속투자, 사업연계)와 정성적 요소(멘토링,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
김진한 외 (2020)	창업기량과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이 기술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은 창업기업 핵심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핵심역량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
김상철 (2022)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및 창업가 특성의 창업성과 영향 및 창업자기효능감 매개 여부 연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중 네트워크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
정재영 (2022)	신용보증기금의 패키지지원(신용보증과 엑셀러레이팅을 함께 지원받는 경우)과 신용보증 단일지원의 효과 비교 연구	엑셀러레이팅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 시 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고용인원에서 유의미한 효과
권영은 (2022)	스타트업 핵심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조절효과 연구	기술역량, 조직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의 관계에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조절효과
김영범 (2023)	엑셀러레이팅과 기업가정신이 참여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엑셀러레이팅의 투자자와의 네트워크와 자금지원이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

출처: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2.1.4.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만족도

이석준 외(2019)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피교육자의 인지된 교육서비스 품질과 기대 수준의 충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며, Astin(1993)은 ‘교육 후 교육의 경험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인 반응을 관찰하는 것’을 교육 만족도라고 정의하고, 교육 시스템과 교육 내용, 교육 강사 등의 요인을 교육생이 평가하도록 하여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하자고 제안하였다(김기홍 외, 2023).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단기간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 참가자의 주관적인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조사할 수 있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회사 성장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품질에 상응하는 기대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시스템과 교육 내용, 교육 강사 등의 요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측정하지 않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개별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창업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투자유치 지원 등의 요소가 각각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중 본 연구 대상인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는 프로그램 참여기업 전체에 대해 입주 공간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어 측정 항목에서 입주 공간을 제외한 반면,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달리 투자뿐만 아니라 융자까지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으로 넓게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네트워크는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았다.

2.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문제와 역경에 시달려도 끈기 있게 행동하면서 회복력을 발휘해 성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긍정적인 심리 발달 상태로서 하위요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조직행동이론과 조직관리 개발에 관련된 긍정성 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상태적 심리자원이다(Luthans et al., 2007; 배미아, 2021; 임태홍, 2014).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고정된 특성(fixed traits)이 아닌 상태(states)이기 때문에 측정, 발전이 가능하며 더 효과적인 업무성과를 위해 관리될 수 있다(Luthans et al., 2004).

2.2.1. 자기효능감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동기부여, 인지적 자원, 그리고 행동 과정에 동원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인데(안화용·한인수, 2013),

리더십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의사결정과정, 목표선택과 직무성과, 창의성, 직무 태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tajkovic & Luthans, 1998). 높은 수준의 자아효능감은 목적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갖게 하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촉진하므로(Breevaart et al., 2014),

자아효능감은 개인에게 자신감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긍정적 기대나 비전을 현실로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하동현, 2018). 또한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은 성취 경험, 간접 경험(모델링), 사회적 설득, 생리적·심리적 각성 등의 자신감 강화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Luthans et al., 2004). 첫째, 성취 경험(Mastery experiences or performance attainments)은 성공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이므로 자신감 개발에 가장 효과적이다. 작업의 복잡성과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인식은 모두 자신감 개발에 영향을 미치며, 인내와 학습을 통해 얻은 성취 경험은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둘째, 간접경험·모델링(Vicarious experiences or modeling)은 직접적인 성취 경험이 적은 사람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실용적인 전략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공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배우는 방법이다. 모델이 비슷할수록(나이, 성별, 외모, 교육, 지위, 경험), 수행하는 작업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자원으로 자신감을 개발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회적 설득(Social persuasion)은 존경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진정성 있게 피드백을 해주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감을 심리적 자원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생리적·심리적 각성(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arousal)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상태가 자신감을 낮추고 후회할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 상태는 자신감을 구축하는데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Luthans et al., 2004).

2.2.2. 낙관주의

낙관주의는 Seligman(1998)으로부터 시작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그는 “좌절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자신의 삶은 궁극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신념”으로 정의하였다(배미아, 2021). 낙관주의는 인지요인으로서 개인이 현재와 미래에 성공하여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목적지향적 신념(Luthans et al., 2007)과 감성요인으로서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경향(Lu et al., 2018)을 포함한다(하동현, 2018).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원인을 설명하는 개인의 스타일을 귀인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Luthans & Youssef, 2004), 낙관주의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건을 항구적, 내재적, 지배적인 요인들로, 부정적 사건은 일시적, 외부적, 특수한 요인들로 귀인 시키지만, 비판주의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건들을 객관화하여 일시적, 특수한 상황적 요인들로, 부정적 사건들은 내면화하여 개인적, 영구적, 지배적 요인들로 귀인 시킨다(Peterson & Steen, 2002;

Seligman, 1998). 낙관주의자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불일치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통제 가능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적인 방식으로, 통제 불능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재구성 과 상황의 현실수용으로 대처한다(Gassin, 1995). 또한 낙관주의자는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이들이 지니고 있는 낙관성은 희망적,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도움을 준다(김옥숙, 2012).

2.2.3. 희망

Luthans & Youssef(2004)는 “희망은 긍정적 동기부여 상태, 즉 목표 지향적 에너지와 목표에 맞는 계획”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희망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갖고 있거나 새로운 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징을 갖는다(Luthans & Youssef, 2004; 배미아, 2021). 일상 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용어를 Snyder et al.(1991)은 ‘주도: 목표 지향적 에너지(agency: goal-oriented energy) 및 경로: 목표 달성 계획(pathways: planning to meet goals)간 상호작용적으로 파생된 감각에 기초한 긍정적인 동기부여 상태’라고 정의하였다(Luthans et al., 2004). 즉, 희망이란 ‘바람직한 목표에 이르는 길 또는 목표지향적 에너지인 경로사고(pathway thinking)와 그 길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동기인 주도사고(agency thinking)를 생성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목표지향적 사고’이다(김옥숙, 2012).

희망은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결의와 개인의 목적을 추구하는 구체적 수단이라는 2가지 하위요소가 있으며, 주어진 목표의 성취 여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한 에고스(egos) 의지와 목표를 성취해 가는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인식으로 결정된다(하동현, 2018). 표면적으로 희망은 다른 긍정적인 능력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이론적·측정적 분석을 통해 개념적 독립성과 차별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희망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 및 긍정심리자본의 다른 역량과 중요한 차별화를 이룬다(Luthans et al., 2004). 즉 희망이 목표 지향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주도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사하지만, 희망은 목표가 달성되는 메커니즘에 초점을 두는 점에서 구분되고(배미아, 2021), 낙관주의가 운에 의해서든, 타인 및 자신의 행동과 관련해서든 미래가 성공적일 것으로 믿는 반면, 희망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를 인지하고 계획수립을 통해 성공적인 목표성취를 위해 노력해가는 과정의 개념으로서 자기주도행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Arnaud et al., 2007; Gallagher & Lopez, 2009; 하동현, 2018). Luthans et al.(2004)은 주도(agency)와 경로(pathways)를 활용한 개념 정의에 따라 희망은 직면 및 조직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목표를 하위단계로 분할하여 작은 승리와 성공을 만들어 내는 경험을 반복하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대체 경로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을 희망 증진의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하였다(Luthans et al., 2004).

2.2.4.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아동 심리병리학에서 비롯되었으며,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설(bounce back)’ 수 있는 능력 또는 극적인 긍정적 변화는 격동하는 오늘날 기업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긍정심리자본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Luthans et al., 2004). 회복탄력성(resiliency)에 대하여 Masten(2001)는 “실패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역량”으로 정의하였고, Luthans(2002)는 “역경, 갈등, 실패 또는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사건(events)이나 과정(process), 증가된 책임부담으로부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즉, 회복탄력성은 역경, 실패, 시련, 갈등 등의 상황에서 이전의 상태 또는 더 높은 상태로 회복하여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심리적 역량이다(김승민, 2018). 회복력이 높은 개인은 낮은 개인에 비해 개인 직무와 조직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을 보유한다(Coutu, 2002). 또한 복원력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강한 상황에서 긍정적 대응 및 협력적 상황 대처에 능하고, 업무에 적극적, 열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으며, 환경 변화가 초래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적 안정감을 통해 여러 업무 상황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장현철, 2021).

2.2.5. 자기효능감과 희망에 대한 선행연구

긍정심리자본은 하위요소간 상호 유기적인 영향을 통해 자본으로서 형성해 나가므로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하위요소별 인과관계를 반영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동현(2018)은 하위요소별 인과관계를 검증해 자기효능감과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고, 희망은 낙관주의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회복탄력성 간에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소 중 자기효능감이 모든 하위요소 중 출발점이 되고, 운 또는 타인의 행동에 의해서도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낙관주의와 달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회복력과 낙관적인 성향을 도모하는 희망이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검증함으로써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소 중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긍정심리자본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하동현, 201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짧은 기간 이루어져 긍정심리자본의 모든 하위요소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과 희망만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기업가정신 또는 창업 분야의 자기효능감은 창업 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으로도 연구되고 있으며, 창업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의 역할과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Chen et al.,1998). Newman et

al.(2019)은 체계적 문헌 검토를 통해 창업 자기효능감의 선행 요인과 결과를 정리하였는데, 선행요인에는 교육 및 훈련, 롤 모델 및 멘토링, 네트워크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결과 중에는 기업성파로 수익성, 이익 및 고용 증가, 혁신 등을 포함하여 창업 자기효능감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기업성과 간의 매개변수로써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박성화·채연희(2017)은 정부 및 창업 지원기관을 통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도움인 사회적 지지가 창업 자기효능감에 정(+)¹의 영향을 미치고, 창업 자기효능감은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성과에 정(+)²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함으로써 자금지원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김형만·김진수(2020)는 긍정심리자본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희망의 선행요인으로 성취목표지향성(achievement goal orientation)을 주목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습자가 주어진 과업에 대해 해석하고 반응하여 인지, 정서, 행동의 다른 패턴을 나타내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성취목표 태도를 갖는 것으로, 창업가에게 창업 교육이나 경영 교육 등의 학습훈련은 창업 성공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취목표지향성은 창업가에게 중요한 구성개념이 된다고 하였으며, 성취목표지향성이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과 희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김형만·김진수, 2020).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접하는 기업가의 만족도에 비례한 태도의 변화가 긍정심리자본의 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김나경(2018)은 소상공인의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은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하여 희망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소로서 자기효능감과 희망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3. 기업성과

초기기업의 성과측정에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 지표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기업의 재무적성과는 기업의 최종적인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 지표이며 단기적 경영성과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지만,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렵고 조직 운영 수준 및 구성원의 조직 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하며, 단기적 경영성과 물입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기업 간 회계처리 방법의 불일치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강달철, 2020). 또한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에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수익은 향후에 발생하며, 기업마다 투자유치 이후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간도 다르므로 정량적인 재무적 지표만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Tsai

et al., 1991). 그리고 기업들이 재무적 상태를 공개하기 꺼려 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얻기 어려우므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Covin & Slevin, 1990),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고려하고 고객의 만족도 측정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수준에 대한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재무적성과를 통해 기업성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운진, 2014; 한동협, 2013).

그러나 비재무적성과의 경우 객관화하기 어렵고 광범위한 측정 범위 때문에 보편적 측정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재무성과의 단점과 한계점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권영은, 2022). 비재무적 지표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기업가의 특성과 자질, 사업모델의 적정성 및 독창성, 보유 기술 등에 대한 판단에 유용하므로(김기대, 2018),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측정할 때 기업의 성과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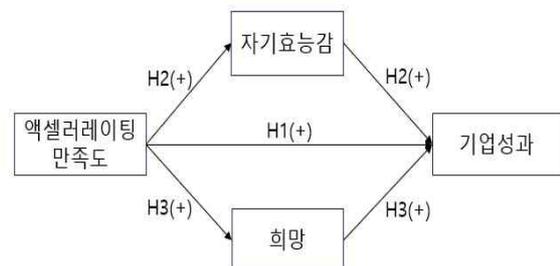
창업 초기기업 재무 자료의 신뢰성 부족과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정량적인 방법의 재무적 분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관적 지표에 의한 측정 방법이 활용된다. 최고경영자가 인지하고 있는 기업성과에 대한 주관적인 예상은 실제 기업성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주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주관적 예상은 재무적성과에도 유효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김기대, 2018). 본 연구에서는 기업 경영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회계적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재무적성과(이성제, 2019)와 기업성과에 대한 종합적, 포괄적 성격의 비재무적성과(Steers, 1997)를 모두 측정하되,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주관적 지표에 의해 측정한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며,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연구대상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 CEO로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3.2.1. 엑셀러레이팅 만족도와 기업성과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급박한 문제해결이나 사업화 자금 확보와 같은 현실적인 수요가 강할 수도 있고, 사업 초기 기업 가격 역량 강화 및 아이디어 확충과 같은 장기적 관점이 참가 동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개별 참가 목적에 따른 맞춤형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진행되므로 개별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우며, 본인의 참가 목적이 얼마나 충족되는가에 따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서비스의 활용도는 달라질 수 있다. 창업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지식, 기술, 노하우, 자금 등이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참가자는 이를 회사 경영에 적극 활용해 기업성과를 높여나갈 것이고,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참가자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프로그램 종료 후 당초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성장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참가자의 주관적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긍정적 영향(강달철, 2020)과 기술역량, 조직역량과 비재무적성과의 관계에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조절효과(권영은, 2022)를 확인한 선행연구에서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하위요소들이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측정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김상철(2022)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중 네트워크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김영범(2023)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서 투자자와의 네트워크와 자금지원이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기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는 스타트업의 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1-1: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는 스타트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1-2: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는 스타트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2.2. 자기효능감과 희망의 매개효과

정부 및 창업 지원기관을 통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도움인 사회적 지지가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창업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박성희·채연희, 2017). 또한 학습자가 주어진 과업(task)에 대해 해석하고 반응하여 인지, 정서, 행동의 다른 패턴을 나타내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성취목표의 태도를 갖는 성취목

표지향성이 희망의 선행요인으로 검증되었고(김형만·김진수, 2020), 소상공인의 희망은 재무적·비재무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나경, 2018). 이러한 선행연구를 감안하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 희망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을 탐색적으로 가정하였다. 즉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과 CEO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게 된 유용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 네트워크, 자금 등을 경영 및 업무수행에 반영할 때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이를 매개하여 기업성과를 나타나게 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자기효능감이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2-1: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자기효능감이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2-2: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자기효능감이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희망이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3-1: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희망이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3-2: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희망이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를 <표 2>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선행연구
엑셀러레이팅 만족도 (독립)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	1. 창업교육 2. 멘토링 3. 자금지원 4. 투자유치지원	강달철 (2020) 권영은 (2022)
자기효능감 (매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1. 어려운 상황 극복 능력 2. 효과적인 일 처리 능력 3. 사업계획 잘 실행 예상 4. 잘못된 방향 신속 교정 5. 업무에 정보 활용 능숙	Bandura (1997) 김상철 (2022)
희망 (매개)	목표 지향적 에너지와 목표에 맞는 계획을 추구하는 긍정적 동기부여 상태	1. 목표를 향해 힘찬 전진 2. 어려움 해결 방법 보유 3. 회사에서 성공적인 입지 4. 목표 도달 방법 도출 5. 계획한 목표에 접근	배미아 (2021) Luthans & Youssef (2004)

재무적 성과 (중속)	기업이 달성한 결과물 중 재무적 성과에 대해 경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	1. 매출액 증가율 2. 수익률 3. 자금흐름	강달철 (2020) 김영범 (2023)
비재무적 성과 (중속)	기업이 달성한 결과물 중 비재무적성과에 대해 경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	4. 회사 인지도 5. 브랜드 가치 6. 고객만족도	

IV.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4.1. 표본의 특성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CEO를 대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26일까지 약 4주에 걸쳐 구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설문하였고, 총 118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와 같다.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수(명,개)	백분율(%)
성별	남자	103	87.3
	여자	15	12.7
연령	20대	8	6.8
	30대	43	36.4
	40대	48	40.7
	50대	19	16.1
학력	고졸 이하	4	3.4
	대졸	63	53.4
	대학원졸 이상	51	43.2
창업경험	있다	46	39.0
	없다	72	61.0
소재지	서울	54	45.8
	경기, 인천	27	22.9
	이외 지역	37	31.4
기업체 업력	1년 미만	2	1.7
	1년 이상 ~ 3년 미만	58	49.2
	3년 이상 ~ 5년 미만	47	39.8
	5년 이상	11	9.3
참여시기	2021년 상반기	17	14.4
	2021년 하반기	24	20.3
	2022년 상반기	42	35.6
	2022년 하반기	35	29.7
업종	제조업	33	28.0
	ICT, SW	59	50.0
	환경, 에너지	4	3.4
	의료, 바이오	9	7.6
	문화콘텐츠	4	3.4
	유통, 물류	2	1.7
	기타	7	5.9
매출액	1억원 미만	44	37.3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7	22.9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4	11.9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3	11.0
	10억원 이상	20	16.9
참여 프로그램	스타트업 네스트	89	75.4
	IBK창업	29	24.6
	합계	118	100.0

4.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4.2.1.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채택한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 자기효능감, 희망,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을 선택했고, 요인 회전은 직교회전의 방법인 베리맥스 회전 (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였으며,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검정을 통해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구형성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4>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구분	Component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2			
엑셀러레이팅만족도1	.885		2.437	60.921	60.921
엑셀러레이팅만족도4	.839				
엑셀러레이팅만족도2	.817				
엑셀러레이팅만족도3	.531				

KMO .682, Approx. Chi-Square 173.971, df 6, $p < .001$

<표 5> 자기효능감, 희망에 대한 요인분석

구분	Component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2			
자기 효능감	자기효능감2	.823	.280	3.403	34.029
	자기효능감1	.785	.328		
	자기효능감4	.782	.260		
	자기효능감5	.723	.276		
	자기효능감3	.708	.359		
희망	희망4	.307	.806	3.154	31.543
	희망5	.343	.776		
	희망2	.208	.729		
	희망1	.259	.717		
	희망3	.390	.631		

KMO .896, Approx. Chi-Square 638.953, df 45, $p < .001$

<표 6> 기업성과에 대한 요인분석

구분	Component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2			
비재무적 성과	기업성과4	.909	.186	2.436	40.596
	기업성과5	.859	.307		
	기업성과6	.811	.327		
재무적 성과	기업성과2	.226	.908	2.391	39.845
	기업성과1	.247	.847		
	기업성과3	.318	.783		

KMO .813, Approx. Chi-Square; 426.808, df 15, $p < .001$

4.2.2. 신뢰도 분석

변수에 대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는 .783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구분	Cronbach's Alpha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	.783
자기효능감	.877
희망	.847
재무적성과	.864
비재무적성과	.887

4.3.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4.3.1. 기술통계분석

정규성 검토 결과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서 왜도(-1.568 ~-.649)와 첨도(-.004~3.537)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구분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액셀러레이팅	118	1.00	5.00	4.2542	.72500	-1.568	3.537
자기효능감	118	2.40	5.00	4.3136	.59311	-.681	-.004
희망	118	2.60	5.00	4.3356	.58170	-.664	-.080
재무적성과	118	1.00	5.00	3.7881	.96832	-.814	.438
비재무적성과	118	2.00	5.00	4.0876	.76165	-.649	-.142

4.3.2. 변수 간 상관분석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와 매개변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변수간 상관분석

구분	액셀러레이팅	자기효능감	희망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
액셀러레이팅	1				
자기효능감	.150	1			
희망	.182*	.690**	1		
재무적성과	.182*	.399**	.412**	1	
비재무적성과	.201*	.484**	.576**	.571**	1

* $p < .05$, ** $p < .01$, *** $p < .001$

4.4. 가설 검증

4.4.1. 액셀러레이팅 만족도와 기업성과

가설 1: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는 스타트업의 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1: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는 스타트업의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t=1.992, p < .05$)와 ‘가설 1-2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는 스타트업의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t=2.205, p < .05$)의 경우 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10>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스타트업의 재무적 성과							
독립변수	B	SE	Beta	t	p	F	R2(Adj)
(Constant)	2.755	.526		5.235	.000	3.969*	.033
액셀러레이팅	.243	.122	.182	1.992*	.049	(.049)	(.025)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스타트업의 비재무적 성과							
독립변수	B	SE	Beta	t	p	F	R2(Adj)
(Constant)	3.191	.412		7.739	.000	4.861*	.040
액셀러레이팅	.211	.096	.201	2.205*	.029	(.029)	(.032)

* $p < .05$, ** $p < .01$, *** $p < .001$

4.4.2. 자기효능감과 희망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 기준에 따르면 첫째,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둘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셋째,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고 이때 매개변수를 추가할 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작아져야 한다(Baron & Kenny, 1986). 이 기준에 따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각각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가설 2: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자기효능감이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t=1.633, p > .05$)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가설 2-1과 가설 2-2는 모두 기각되었다.

<표 12>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계	항목	스타트업의 재무적성과						
		B	SE	Beta	t	p	F	R2(Adj)
①	액셀러레이팅(독립) → 재무적성과(종속)	.243	.122	.182	1.992*	.049	3.969* (.049)	.033 (.025)
②	액셀러레이팅(독립) → 자기효능감(매개)	.123	.075	.150	1.633	.105	2.668 (.105)	.022 (.014)
③	(Constant)	.398	.721		.552	.582		
	액셀러레이팅(독립) → 재무적성과(종속)	.167	.114	.125	1.457	.148	12.177** (.000)	.175 (.160)
	자기효능감(매개)	.622	.140	.381	4.443**	.000		

*p<.05, **p<.01, ***p<.001

<표 13>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계	항목	스타트업의 비재무적성과						
		B	SE	Beta	t	p	F	R2(Adj)
①	액셀러레이팅(독립) → 비재무적성과(종속)	.211	.096	.201	2.205*	.029	4.861* (.029)	.040 (.032)
②	액셀러레이팅(독립) → 자기효능감(매개)	.123	.075	.150	1.633	.105	2.668 (.105)	.022 (.014)
③	(Constant)	.932	.540		1.725	.087		
	액셀러레이팅(독립) → 비재무적성과(종속)	.138	.086	.131	1.604	.111	19.231** (.000)	.251 .238
	자기효능감(매개)	.596	.105	.464	5.663**	.000		

*p<.05, **p<.01, ***p<.001

가설 3: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희망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희망의 매개효과는 Baron & Kenny(1986)의 검증기준을 충족하여 가설 3-1과 가설 3-2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 14>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희망의 매개효과

단계	항목	스타트업의 재무적성과						
		B	SE	Beta	t	p	F	R2(Adj)
①	액셀러레이팅(독립) → 재무적성과(종속)	.243	.122	.182	1.992*	.049	3.969* (.049)	.033 (.025)
②	액셀러레이팅(독립) → 희망(매개)	.146	.073	.182	1.994*	.049	3.976* (.049)	.033 (.025)
③	(Constant)	.335	.720		.465	.643		
	액셀러레이팅(독립) → 재무적성과(종속)	.148	.115	.111	1.289	.200	12.728** (.000)	.181 (.167)
	희망(매개)	.652	.143	.391	4.551**	.000		

*p<.05, **p<.01, ***p<.001

<표 15>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희망의 매개효과

단계	항목	스타트업의 비재무적성과						
		B	SE	Beta	t	p	F	R2(Adj)
①	액셀러레이팅(독립) → 비재무적성과(종속)	.211	.096	.201	2.205*	.029	4.861* (.029)	.040 (.032)
②	액셀러레이팅(독립) → 희망(매개)	.146	.073	.182	1.994*	.049	3.976* (.049)	.033 (.025)
③	(Constant)	.477	.508		.940	.349		
	액셀러레이팅(독립) → 비재무적성과(종속)	.104	.081	.099	1.286	.201	23.803** (.000)	.341 (.330)
	희망(매개)	.731	.101	.558	7.232**	.000		

*p<.05, **p<.01, ***p<.001

4.4.3. 검증 결과 요약

가설검증 결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는 스타트업의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때 희망이 매개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가설 및 연구문제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가설검증 결과 요약

No	가설	결과
1-1	액셀러레이팅 만족도 → 재무적 성과	채택
1-2	액셀러레이팅 만족도 → 비재무적 성과	채택
2-1	액셀러레이팅 만족도 → 자기효능감 → 재무적 성과	기각
2-2	액셀러레이팅 만족도 → 자기효능감 → 비재무적 성과	기각
3-1	액셀러레이팅 만족도 → 희망 → 재무적 성과	채택
3-2	액셀러레이팅 만족도 → 희망 → 비재무적 성과	채택

4.4.4. 기타(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매개효과 분석)

스타트업의 운영 과정에서 얻게 된 다양한 경험 등으로 인해 창업 경험 유무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희망의 매개효과가 다를 수 있어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창업 경험의 유무와 관계 없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창업 경험 있는 경우: $t=1.616, p>.05$ / 창업 경험 없는 경우 $t=.839, p>.05$), 매개효과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으나, 희망은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7> 창업 경험 별 희망의 매개효과

창업 경험	항목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			
			Beta	t	F	R ² (Adj)	Beta	t	F	R ² (Adj)
있다 (N46)	독립→중속		.429	3.150** (.003)	9.924** (.003)	.184 (.165)	.431	3.166** (.003)	10.021** (.003)	.185 (.167)
	독립→매개		.305	2.125* (.039)	4.517* (.039)	.093 (.072)	.305	2.125* (.039)	4.517* (.039)	.093 (.072)
	독립	→ 중속	.281	2.261* (.029)	14.158*** (.000)	.397 (.369)	.251	2.217* (.032)	21.391*** (.000)	.499 (.475)
	매개		.485	3.898*** (.000)			.588	5.184*** (.000)		
없다 (N72)	독립→중속		.066	.557 (.579)	.310 (.579)	.004 (-.010)	.086	.723 (.472)	.523 (.472)	.007 (-.007)
	독립→매개		.131	1.102 (.274)	1.215 (.274)	.017 (.003)	.131	1.102 (.274)	1.215 (.274)	.017 (.003)
	독립	→ 중속	.024	.206 (.837)	4.253* (.018)	.110 (.084)	.020	.188 (.852)	12.287*** (.000)	.263 (.241)
	매개		.327	2.857** (.006)			.510	4.887*** (.000)		

*p<.05,**p<.01, ***p<.001

V. 결론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참여자(CEO)의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는 스타트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프로그램에서 제공받은 인적, 물적 서비스 및 자원을 회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성과도 향상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신용보증, 융자, 직접 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확보한 자금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거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매출, 이익의 증가와 자금흐름의 개선 등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 액셀러레이터의 자금지원 및 초기 투자 등이 경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팅에 참여하는 이유라는 주장(김영범, 2023)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한 숙련된 멘토가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밀착지원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성, 사업성을 높이고 회사 경영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외형 신장과 수익성 및 자금 여건의 개선 등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업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비재무적성과에 주로 주목하고 있고(한동협, 2013; 김운진, 2014; 김중식, 2017; 김경수, 2018; 김상철, 2022) 재무적성과까지 포함하여 측정된 연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의 재무적성과에 대한 정(+)의 효과를 확인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는 스타트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멘토링의 경력 기능(career function; 후원, 노출, 소개, 코칭, 보호, 도전적 과제 부여 등)과 심리 사회적 기능(psychosocial function; 역할모델, 수용 및 지원, 상담, 우정 등)이 액셀러레이팅의 밀착지원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되고(Kram, 1983), 사업 추진의 전과정에 걸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한 CEO의 경영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비재무적성과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희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어진 과업에 대해 해석하고 반응하여 인지, 정서, 행동의 다른 패턴을 나타내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성취 목표의 태도를 보이게 하는 성취목표지향성(achievement goal orientation)이 창업가의 희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김형만·김진수, 2020),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참여자는 멘토링, 교육 등을 통해 경험하는 계획수립이나 과제 달성 등의 훈련을 통해 성취목표지향의 태도 변화가 유발되고 희망 수준도 영향을 받는다.

희망은 목표지향적 에너지와 목표에 맞는 계획을 추구하는 긍정적 동기부여 상태로, 희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새로운 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성을 보인다(Luthans & Youssef, 200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와 자기주도적 행동을 통해 달성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희망이 멘토링의 경력기능 및 심리사회적 기능과 전문 교육으로 하여금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데 매개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희망 지수가 높은 창업자는 목표성취를 위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창의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가는데(Zhou & Ren, 2012; 배미아, 2021), 능력을 개발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멘토링과 전문

지식에 대한 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하게 된 경영 노하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비즈니스모델의 고도화 및 사업성 개선과 경영성과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 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 성취 경험, 간접 경험(모델링), 사회적 설득, 생리적·심리적 각성 등의 강화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Bandura, 1997). 이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본인의 직접적 성취 경험이고, 이러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나이, 성별, 외모, 교육, 지휘, 경험 등이 본인과 비슷한 조건의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배우는 간접 경험 방식(모델링)이 실용적 대안으로 제시된다(Bandura, 1997). 그러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3-6개월의 단기간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에 직접 성취 경험을 얻기 어렵고 간접 경험 방법도 개별 사례들의 구체적 상황은 모두 달라 무용담의 단순 청취에 그칠 가능성 있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 해석된다. 다만, 매개효과 측정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기업성공에 대한 정(+)의 영향은 유의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재무적성과 $t=4.443, p<.001$ / 비재무적성과 $t=5.683, p<.001$), 자기효능감은 기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의 역량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금융공기업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기업성공에 정(+)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 의미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 액셀러레이터가 핵심역량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며(권영은, 2022), 액셀러레이터 선택의 어려움(권용석 외, 2019)과 의견불일치로 인한 갈등, 불안감, 직무스트레스 등(안혜진·이승하, 2021)이 액셀러레이터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액셀러레이터가 기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액셀러레이터의 역량 강화와 스타트업·액셀러레이터 간의 정보 인프라 구축 등 액셀러레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아울러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설계하고, 참가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기업성공에 영향을 미칠 때 희망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므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희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희망은 ①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조직 및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명확

하게 해결하기, ② 목표를 하위 단계로 분할하고 작은 승리와 성공을 만들어 내기, ③ 목표에 대한 대체 경로 및 대비 계획 마련하기, ④ 목표 달성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인정하고 최종 달성에만 몰입하지 않기, ⑤ 장애물과 문제에 직면할 때 지속하는 준비와 의지를 보유하기, ⑥ 거절된 희망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목표를 재설정할 시기와 방법에 대해 훈련하기 등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Luthans et al., 2004). 이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설계, 보완한다면 참여자의 희망 수준을 높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기업성공에 미치는 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이다.

셋째, 참여자의 자기효능감과 희망 수준을 측정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고, 희망의 경우에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그 수준을 높일 수는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세분화하면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희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설계도 필요하나, 단기간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시작 전 참가자의 자기효능감과 희망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 수준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를 프로그램의 하위요소별로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측정하였으나, 만족도라는 사전적 정의에서 벗어나 성과에 도움이 된 정도를 측정하였고 이로 인해 독립변수(회사 성장에 도움 정도)와 종속변수(재무적, 비재무적성과)의 동어반복 가능성과 역(逆) 인과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척도를 정교하게 정의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성과 측정에서 많은 선행연구가 CEO의 기업성공에 대한 주관적 예상이 실제와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주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기업성공을 CEO의 응답을 통한 주관적 지표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점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모두 동일인에 대하여 동일 시점에 측정된 것과 함께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재무성과 등에 대해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량 모형으로 연구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터의 역량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프로그램 참가자의 특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멘토와 멘티간의 적합성(fit)에 의해서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멘토-멘티 적합성을 변수로 채택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융공기업이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참가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은 순수 민간이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참가자에 비해 성공에 대한 열정과 의지, 기업가적 역량 등이 높고 이들이 추구하는 비즈니스모델의 완성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순수 민간이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자로 모집단을 구성하여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희망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대표의 인성 등 프로그램 참여도 및 수용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는 등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변인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강달철(2020).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권영은(2022). *스타트업 핵심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권용석·황보윤·이종훈(2019).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 선택 시의 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4(1), 33-46.
- 김경수(2018). *창업가역량이 엑셀러레이터의 멘토링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연구*, 신용보증기금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김기대(2018). *기업가정신과 경영자 역량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김기완(2023).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김기홍·이창영·조지형(2023). 창업 멘토링 기능이 창업의지와 멘토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오픈스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8(3), 211-226.
- 김나경(2018). *소상공인의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상철(2022). *엑셀러레이터 보유기업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김승민(2018). *긍정심리자본이 학습전이 특성과 학습전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산가톨릭대학교.
- 김옥숙(2012). *청소년 희망적 사고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김영범(2023). *엑셀러레이팅과 기업가정신이 참여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혁신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김윤진(2014). *창업기 벤처기업의 창업성과와 조직학습 및 기업가 지향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종식(2017).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창업 역량을 매개 변수로*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김진한·조진형·이세재(2020). 창업가역량과 창업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기술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 역량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43(1), 132-142.
- 김형민·김진수(2020). 창업가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요인: 긍정심리자본과 선행요인. *벤처창업연구*, 15(5), 203-220.
- 박성화·채연희(2017). 여성창업가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사회적자본, 사업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사회적지지, 사회적자본, 사업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2(6), 475-491.
- 배미아(2021).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긍정심리자본이 기업가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만족도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배광득(2021). *스타트업 대상 창업멘토링이 만족도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국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배상환·이동명(2022). AHP 기법을 이용한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 선택 의사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20(2), 127-140.
- 신용보증기금(2023). *Start-upNEST 제4기모집공고* Retrieved from <https://www.kodit.co.kr/kodit/na/ntt/selectNttInfo.do?mpPwd=&mi=2638&Check=&currPage=5&csrf=fl22d069-a1c7-4e22-947b-86a6209edcc4&searchValue=&bbbsId=148&searchType=all&nttSn=1262066&custCIAT=&selectType=&ps=&val=>.
- 안혜진·이승하(2021). 창업지원사업 운영제도 개선방안: 창업지원기관과의 의견불일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6(3), 76-108.
- 안화용·한인수(2013). 진실한 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 대한 고찰. *경영경제연구*, 35(2), 97-118.
- 이석준·박우영·이병관(2019). 체육계열 대학생의 창업멘토링이 창업교육 만족도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31(12), 407-422.
- 이성재(2019). *창업멘토링이 창업기업의 창업성과 및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이슬기·강재형·남정민(2022). 창업자의 창업생태계 인식이 ESG 경영을 매개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6(4), 43-73.
- 임영관(2020).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가 관광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임태홍(2014). 한국판 긍정심리자본척도(K-PPC) 타당화 검증. *코칭능력개발지*, 16(3), 157-166.
- 장현철(2021).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정재영(2022). *스타트업 지원 정책 효과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중소기업은행(2023). *기업은행, 2023년 하반기 'IBK 창공(創工)' 혁신창업기업 모집*. Retrieved from <https://www.ibk.co.kr/cyber/noticeDataDetailCyber.ibk>.
- 하동현(2018). 긍정심리자본 구성요인 간의 관계. *호텔경영학연구*, 27(3), 81-99.
- 한동협(2013).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과 비재무적성과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14(5), 287-304.
- Arnau, R. C., Rosen, D. H., Finch, J. F., Rhudy, J. L., & Fortunato, V. J.(2007). Longitudinal effects of hope on depression and anxiety, A latent variable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75(1), 43-64.
- Astin, A.(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Jossey-Bass.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 1177.
- Breevaart, K., Bakker, A. B., & Demerouti, E.(2014). Daily self-management and employee work engag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4(1), 31-38.
- Chen, C. C., Greene,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Cohen, S., & Hochberg, Y. V.(2014). Accelerating startups: The seed accelerator phenomenon. *SSRN Electronic Journal*, 1-16.
- Coutu, D. L.(2002). How Resilience Works. *Harvard Business Review*, 80(5), 46-55.
- Covin, J. G., & Slevin, D. P.(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 Gallagher, M. W., & Lopez, S. J.(2009). Positive expectancies and mental health, Identifying the unique contributions of hope and optimism.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548-556.
- Gassin, E. A.(1995). *Social Cognition and Forgiveness in Adolescents romance; An Intervention stud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 Isenberg, D. J.(2010). *How to start an entrepreneurial revol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 Kram, K. E.(1983). Phases of the mentor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4), 608-625.
- Lu, X., Xie, B., & Guo, Y.(2018). The trickle-down of work engagement from leader to follower, The roles of optimism and self-efficac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84, 186-195.
- Luthans, F.(2002).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Developing and managing psychological strengths.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16(1), 57-72.
- Luthans, F., Luthans K. W., & Luthans, B. C.(200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1), 45-50.
- Luthans, F., & Youssef, C.(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mics*, 33(2), 143-160.
-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2007).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Masten, A. S.(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105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iller, P., & Bound, K.(2011). The Startup Factories; The Rise of Accelerator Programmes to Support New Technology Ventures. *Nesta, Discussion paper*, 8-11.
- Nesta(2024). *Startup Accelerator Programmes: A practice guide*. Retrieved from https://media.nesta.org.uk/documents/startup_accelerator_programmes_practice_guide.pdf.
- Newman, A., Obschonka, M., Schwarz, S., Cohen, M., & Nielsen, I.(201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ts theoretical found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outcomes,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0, 403-419.
- Peterson, C., & Steen, T.(2002). *Optimistic explanatory style*, In C. R. Snyder and S.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44-256.
- Rickne, A. (2006). Connectivity and performance of science-based firms. *Small business economics*, 26, 393-407.
- Seligman(1998). *Learned Optimism*. New York: Pocket Books.
- Seligman, M., & Csikszentmihalyi, M.(2000).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Harney, P.(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 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Stajkovic, A. D., & Luthans, F.(1998). Social cognitive theory and self-efficacy: Going beyond traditional motivational and behavioral approaches. *Organizational Dynamics*, 26, 62-74.
- Steers, R. M.(1977).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behavioral view*. CA: Goodyear Publishing Company.
- Tsai, W. M. H., MacMillan, I. C., & Low, M. B.(1991). Effects of strategy and environment on corporate venture success in industrial market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1), 9-28.
- Zhou, J., & Ren, R.(2012). Striving for creativity, Building positive contexts in the work-place. *The Oxford handbook of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97-109.

The Effect of Accelerating Program Satisfaction on Corporate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Hope*

Kim, Ki Wan**
Kim, Jong S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startup CEOs' self-efficacy and hope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an acceleration program and business performance. While the impact of acceleration programs on business performance has been validated through various studies,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whether differences in business performance, despite participating in the same program, are attribu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o this end, satisfaction with the acceleration program was set as the independent variable, business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self-efficacy and hope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the mediating variables. A survey was conducted on startup CEOs who participated in acceleration programs offered by financial public institutions, specifically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and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in order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differences in accelerator competence and program quality.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satisfaction with the acceleration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both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f startups, and hope serves as a mediating factor in this relationship. This study suggests that to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of startups,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activate and enhance the roles of domestic accelerators. Additionally, it proposes that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acceleration programs, detailed components of these programs should be designed to elevate the participants' level of hope.

KeyWords: Acceleration Program, Corporate Performance, Self-Efficacy, Hope, Mediating Effect

* This paper was written based on the master's thesis of the author, Kim, Ki Wan. (Kim, 2023)

** First Author, Ph.D. Student in the Graduate School at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kwkim6163@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01041603713@kookmin.ac.kr